‘전입신고 사후확인’ 유명무실

해당 이·통장 신고 내용 사실 확인 후 행정에 보내야
대정읍 “지방선거로 바빠”… 최소 3개월치 내용 누락
실제 세대 방문 확인 어려워 일부선 형식적 절차 전락

위장전입 방지 등을 위한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시에서 사후확인 내용을 마을에 보내지 않거나 그 사실을 알리더라도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해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통보받은 시장·군수 등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등에는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같은 시행령에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최근 23개 행정리에 이 같은 전입신고 사후확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읍의 현직 이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란 말을 처음 듣는다”고 했고, 몇 년 전 이장을 지냈던 한 지역주민은 “그런 절차가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정읍의 관계자는 “지방선거 업무 등으로 바빠서 담당 공무원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각 마을에 전입신고 사후확인서를 보내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누락된 내용에 대해선 조만간 각 이장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일부 지역에서 ‘깜깜이’ 제도로 전락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제주시의 한 이장은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후확인을 위한 업무라고 해도 이장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는 일도 생긴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반면 일부 이·통에서는 전입신고 사후확인서를 받더라도 실제 세대별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읍·면사무소의 관계자마저 “마을에서 대상이 되는 세대를 직접 가가호호 찾아 100% 전입신고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사계리 해안 관광객들 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제주시, 4079필지 22일까지

제주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370필지 가운데 도로·구거·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4079필지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22 제주愛 빠지다 ❸ 제주로 귀농한 최한솔씨

“제주 귀농 과정에서 많은 이들 도움”

숨쉴 곳 없는 대도시의 삶 대신 자연 속 평온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귀농을 선택한다.

그러나 ‘돈 벌면서 힐링’이라는 멋모르는 꿈을 품고 혈혈단신 몸으로 농촌을 찾은 이들에게, 눈앞의 현실로 닥친 시골 살이는 더이상 아른한 로망이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정하는 단계부터 키울 때의 초조함, 수확의 기쁨, 판매 과정에서 겪는 난관까지 모든 시름과 고민의 과정을 스스로 인내하고 정직하게 겪어야만 비로소 정착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귀농과 농사라는 단어는 여전히 중년 이후의 나이가 되어서야 낯설지 않은 이름으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수많은 지자체가 귀농 청년 유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농촌에 온 청년 1명은 단순히 한 손의 노동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다. 청년 인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 특산물과 우리 동네와 공간을 시대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농부 10명이 “1명의 청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올해 봄 서귀포로 이주한 최한솔 씨. 스페인에서 대학·대학원을 수료 후 귀국, 해외 영업 업무를 해오던 최 씨는 이젠 농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농업 교육 이수에 한창이다. 더불어 이주 과정에서 도움을 준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들과 효돈동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올 봄 서귀포 이주 후 농업 관련 교육 이수 한창
스페인서 대학·대학원 수료 후 해외 영업 업무
“저와 맞고 제가 원하던 일상을 살고 싶어서 귀농”

최한솔(34) 씨는 올 봄 서귀포시에 갓 이주했다. 내년 초 농부, 농민, 혹은 농업인이 되길 희망하며 농업 교육 이수에 한창이다. 그는 “원래는 50살이 되면 귀농을 하고 싶었어요. 이전 전공을 바탕으로 했던 일이 적성과 잘 맞지 않았고, 전공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라고 운을 뗐다.

부산 출신인 그는 스페인어를 전공해 스페인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수료한 뒤 귀국한 이후로 해외 영업 직무에서 일을 했다고 이력을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은 당초에 선택했던 전공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삶을 살았어요. 어릴 적 했던 선택과는 또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삶을 살아 보고 싶었어요”라고 귀농 계기를 설명했다.

특히 귀농과 이주 과정에서 서귀포시 지자체 소속 직원들과 효돈동 소재 농장주 등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운 좋게도 제주에 오기로 마음 먹은 이후 만난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셔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 제주에 오려고 했을 때, 서귀포시청에 귀농 관련 정보를 요청하니 바쁜 시간을 쪼개 메일로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후에 효돈동에서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어요.

또 지난해 한라봉 수확 시기에 제주에 와서 일주일 가량 몸으로 경험해보니,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그 간의 경험을 전했다.

짧은 제주살이를 하는 동안 느낀 소감도 덧붙였다.

“처음 제주에 올 때 배를 타고 부산에서 왔는데, 도착했을 때 안개가 자욱하던 첫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흔한 것들이 저에게는 많이 다가왔어요. 도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평범하게 누렸던 것들이 주변에 없다는 점도 있긴 했지만, 저와 맞고 제가 원하던 일상을 살고 있어 좋아요. 특히 농사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햇볕이 너무 강해도 당일 작업은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도 저랑 잘 맞았어요”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